

## 모듈형 교육사례 연구

김성기(협성대학교 교수)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요약

사회는 인구감소, 다문화, 계층양극화, 국제화, 4차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전통적 산업사회형 대량생산체제에 머물러 있다. 일률적인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에 획일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은 모든 학습자들이 성공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별별랩’이라고 하는 대안적 교육공간에서 운영하는 모듈형 교육사례를 참여관찰하고 그 특징과 의의, 남겨진 논제를 제시하였다. 이 사례에서 교육의 내재적 가치성, 시간의 상대성, 공간의 확장성, 학습자의 주체화, 교육내용의 현성성과 가변성, 모듈형 경험 쌓기라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교육의 안정성, 학력인정의 논제가 남아 있다.

키워드(Keywords): 모듈, 대안교육, 대안학교

## I. 서론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학문중심교육과정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학문중심교육과정을 주장했던 부르너가 강조했던 발견학습이나 탐구학습은 적용되지 않고 말 그대로 ‘학문’이 교육과정을 점령했다. 1980년대까지 학교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 교실에 70명 이상을 수용했던 상황에서 발견학습, 탐구학습이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열은 소위 명문대를 포함한 한정된 교육기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도가니에 모든 사람들을 빠져들게 했다.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이미 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어려운 학문적 용어와 공식, 내용들이 교육과정을 점령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많이 잘 외우고 다시 재생해 내는 사람은 명문대를 진학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낙오자가 되었다.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를 해야 했다. 학생들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에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아 왔다.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 필요, 수준은 무시된 채 선별의 과정으로만 교육을 받아왔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교육환경도 과거의 소품종대량생산과 같은 체제를 탈피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등에서도 많은 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하나의 시도로서 ‘별별랩’이라고 하는 대안교육시설의 교육적 실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별별랩은 지금까지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이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편제표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가르치는 내용이 학습자보다 우선인 교육이었다는 것을 비판한다. 이에 비해 별별랩의 교육은 학습자를 출발점으로 삼고 학습자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흥미와 적성,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모듈식 교육과정으로서 정규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 과정을 꾀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대안교육공간으로서 당장 그 실험들이 성공한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역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17년 6.9 전체회의 참여, 6.21 수업참여, 6.29 길잡이교사들과의 회의, 7.4 인턴쉽 현장방문면담, 7.11 수업참여 및 청소년면담, 8.17 길잡이교사 면담, 8.30 기획회의 참여, 9.14 길잡이교사와 청소년들과의 면담(아름

다운재단 주최) 등을 거치면서 별별랩의 움직임과 참여자들의 생각을 읽고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사회와 교육의 변화 동향을 제시한 후 별별랩 교육활동의 특징을 스케치하고, 의의와 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사회 변화와 교육적 시사점

### 1. 저출산과 교육

교육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제영, 2017).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7보다 낮다(OECD, 2017). 출생아수는 1957년 이후 1971년생까지 100만 명이 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1996년에 70만 명 대 이하로 감소하였고, 2002년부터는 40만 명대로 급감하였다(통계청, 2017). 2002년 이후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신생아 출생은 40만명 대를 유지하며 저출산 추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는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양가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현재의 학교교육 체제의 대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나 대학의 경우에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존재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체적인 학생수의 감소는 학급규모 등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는 노동집약적 사회에서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맞는 맞춤형 소량생산체제로 교육체제를 바꾸어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즉 노동집약적 사회에서는 분야별로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의 다양성이 중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집약적 사회에서는 사회적 직업이 다양화되고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특정한 직업분야에 집중되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저마다 다양한 특기를 가진 인간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다문화와 교육

학령인구의 감소로 노동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정부는 의도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2007년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를 시행한 이래 등록외국인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월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2,049,441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 51,696,216명의 4.0%에 근접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 전체 초·중·고 학생에서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0.44%에서 2015년 1.35%, 2016년 1.68%로 나타나 2010년 대비 최근 7년간 약 4배 상승했다(교육부, 2016a; 교육부, 2017c).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재학생의 과반수 이상인 학교도 등장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대상 학생을 위한 기초교육의 강화와 함께 개별화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정제영, 2016b). 또한 교육의 내용도 다문화 이해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3. 사회적 양극화와 교육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그로 인한 교육 격차의 심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정제영, 2016a). 2014년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월평균 8,300원인데,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월평균 195,100원으로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230만원 수준이며(교육부, 2014), 원어민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연간 교육비는 1천만 원이 넘기도 하여 사립대학의 등록금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14.). 양극화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소득 가구에서만 증가하였고, 600만원 미만의 모든 가구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최상위 가구(700만원 이상)의 사교육 참여율은 81.9%로 가장 높았고, 최하위 가구(100만원 미만)는 30.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7a; 교육부 2017b).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1분위와 5분위간 학생의 학원 교육비 격차는 8.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a). 교육비 격차는 학업성취도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된 격차가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고등학생의 최종적인 학업성취 결과는 수능 성적과 대학입학 결과로 나타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학 입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

학에 입학해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비의 부담으로 인해 근로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게 되고, 본업인 학업에 충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학교교육체제는 이미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를 전제로 하고 그 속에서 우수생과 열등생을 갈라 그 불평등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이미 그 체제에 편입할 때부터 성적의 상하는 갈라져 있는 상태이다. 열등생들은 우수생의 우수한 성적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분량이 많고 어려운 교육과정을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잘 암기하고 재생활 수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평가체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학생마다의 상황이나 관심, 특기, 필요, 요구 등은 무시한 채 우수학생의 선별만을 위한 교육을 해왔던 것이다.

#### 4. 4차 산업혁명과 교육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제도로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특히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산업사회형 학교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학교는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Hargreaves & Shirley, 201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역량은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의 암기력과 지식의 양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OECD-DeSeCo 프로젝트 참여국 보고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핵심 역량은 사회적 역량, 협력, 문해력, 지적·응용 지식, 학습역량, 평생교육, 의사소통역량 등이었다(김창환 등 2013:21). UBS(2016)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도에서 세계 25위를 차지했다. 똑같은 상품을 찍어내듯이 대량생산체제로 일관해 왔던 한국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II. 미래교육의 방향과 별별랩을 바라보는 관점

지금까지 미래교육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한 마디로 ‘국가가 주도하는 근대적 대량생산체제’에서 ‘개인의 성공적 학습을 추구하는 개별화 학습체제’라는 것을 보았다. 기존의 교육체제가 어떤 문제를 낳아 왔는지도 보았다. 개인의 성공적 학습을 가로막는 대량생산체제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교육의 개념과 체제의 문제이다. 교육은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을 국가가 선별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교육법상 교과는 대통령이 정하고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안에서 교육청이나 학교가 약간의 자율적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과연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인지는 의문이다.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적 지식’을 바로 ‘교육내용’으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학문적 지식으로 성공적 학습자와 실패한 학습자를 선별하려는 목적과 닿아 있다. 개인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사회체제로서의 교육체제의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다.

둘째로, 시간의 문제이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간에 등교해서 동일한 시간에 하교하도록 한다. 출석을 점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출결상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각기 관심이나 성향, 요구, 필요, 욕구, 수준이 다른 30명의 학생이 동일한 시간표를 하루 과업을 수행한다. 학생들이 시간표 안에 갇혀 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량품으로 낙인찍히듯이.

셋째로, 공간의 문제이다. 모든 학습이 담이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가사, 환경 등 모든 과목이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왜 이러한 모든 과목이 학교에서만 교육되어야 하는가? 학교에서 이러한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러한 과목의 내용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것이 학교밖에서 얻은 것은 없을까? 오히려 많은 경우도 있다.

넷째로, 주체의 문제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교육은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로 보아 왔다. 마치 학생은 백지, 혹은 백치인 것처럼 취급해 왔다. 아무 것도 모르는 존재로서 교사가 채워주어야 하는 존재로 대우해 왔다. 프레이리가 말한 은행예치식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학생이라고 불리는 인간들은 모종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사고한다. 교육은 그 경험과 사고를 재구성해나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교육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

다섯째로, 교육내용의 문제이다. 교육내용이라고 하면 흔히 교육과정을 떠올린다. 그런데 교육과정(敎育課程)에서 ‘課’는 과업(課業)을 뜻한다. 마치 반드시 밟아야 하는, 그래서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대량교육체제가 가정하는 교육내용이다. 누구나 이 지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한다는 철학과 닿아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배제되어 있고 국가가 내용을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학습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내용이었다.

여섯째로, 방법의 문제이다. 교사 1명이 30여명의 학생에게 판서를 해가면서 지식을 전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 이후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그 하나의 원인이 있다. 국가의 재정이 풍족하지 않아 학교를 충분히 세우지 못했고, 교사도 충분히 임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규모학교, 다인수학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초까지 한 교실에 80명이 수업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개별화 수업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바뀌었다. 인구감소는 개별화 학습체제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 Ⅲ. 별별랩 활동의 특성

이러한 여섯 가지 관점에서 별별랩의 교육활동을 분석해 보자.

#### 1. 교육의 내재적 가치성

별별랩에서 교육은 더 이상 고정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직업과 지식의 생멸 속도가 빠르다. ‘배워서 써먹고 써먹으면서 다시 배우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작은 생업의 능력을 여러 개 탑재’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들은 그렇지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고, 일도 주로는 개인이 아닌 팀으로 하게 된다.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우위를 점할 기능적 전문성(지식)보다는 사회성, 공감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 해결능력이 중요시된다. 교육은 바로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다.

제도권 교육에서는 교육의 결과로서 학력인정을 하고, 그 증표로서 졸업장을 발급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제도를 보면 학력이 교육의 결과, 즉 성취도나 학업능력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맨 뒷좌석에서 잠만 자도 학력이 인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적 학력인정체제는 대개 학교에서의 수업일수 190일 중 약 2/3만 출석하면 학력을 인정해주는 체제이다. 현재의 학력인정제도는 실질적 학력 인정제도가 아니라 형식적 학력 인정제도이다.

시험은 보지만 그것이 진급이나 졸업요건으로서의 일정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단지 서열등급을 매기기 위한 판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혹은 하라고 하니까 관성적으로 행할 뿐이다. 따라서 진단평가나 형성평가, 총괄평가 그 어떤 교육학적 기본원리도 학교에서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별벌랩에서의 교육은 졸업장이라고 하는 표면적 학력인정증서를 취득하기보다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 능력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특정 직업에서의 직무능력을 터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긴 경로를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시기마다 다른 역량을 탑재하면서 길을 잃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스스로의 생존역량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긴 경로를 단계별로 준비’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으로부터 도출되는 문제들은 외면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교에 재학하고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별벌랩에서는 학습자들의 ‘자기육구’를 중시한다.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목적과 목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각자의 삶, 각자의 개성, 각자의 관심사, 각자의 욕구로부터 시작하는 개별화된 프로젝트를 수행하자고 시작한 것이 바로 별벌랩이다.

따라서 별벌랩에서는 이미 정해진 교육의 목적과 목표란 없다. 성인들로 주축이 된 정부에서 정한 목적이나 내용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학습자들의 욕구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벌랩에서의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라는 것을 보면 마치 놀이행위와 유사하다. 이미 정해진 과업을 억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규칙들이 생성되고 활동이 이루어진다.

“놀이가 갖는 힘이 크다. 잘 놀 줄 알아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힘이나 기회가 없다. 놀이 속에도 기획과 규칙, 고민 등이 있다. 그것들을 만드는 힘만 있으면 된다. 별벌랩도 그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아름다운 학교는 놀 환경을 꾸며준다면 별벌랩은 이제 본격적으로 놀게 하는 곳. 내가 스스로 못 노는구나 깨닫게도 한다. 노는 것은 ‘돈을 벌지 않는 행동’이 아니다. 내 시간을 잘 쓰는 것도 놀이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것도 놀이이다.”

[길잡이교사의 진술]

일반학교는 놀 생각을 못하게 한다. 놀 시간을 주어도 내가 지금 놀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미 정해진 과업들로 꽉 차 있어서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 그러나 별벌랩은 놀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게 한다. 대표적으로 교육과정도 교사들과 학생들 간의 기획회의를 통해 만들어간다. 이는 뒤에서 상술할 것이다. 요컨대,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은 더 좋은 학교나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기 위한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점에 비해 별벌랩에서의 교



육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의 학습과정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 2. 시간의 상대성

학교에서 ‘교육 시간’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교실 앞쪽 우측에 붙어 있는 시간표가 떠오를 것이다. 그 시간표의 유효기간은 한 학기이다. 그 시간표는 ‘누군가의 시간표’가 아니고 ‘누구나의 시간표’이다. 즉 한 학급의 모든 학생을 위한 시간표이다. 누구나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누구나 국가 혹은 교육청, 최소한 학교에서 정한 시간표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학습자 개인에게 관심이 없더라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의 학창시절을 돌아보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과목을 어쩔 수 없이 듣고 있어야만 했던 과목들이 꽤 있다.

학습자들은 위에서 말한 관심이나 욕구 뿐만 아니라 수준도 제각각이다. 그럼에도 동일한 시간 내에 1등급의 학생과 9등급의 학생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고 동일한 시험지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러야 한다. 9등급 학생들은 1등급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9등급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위등급에 머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학교가 능력주의 기제를 갖고 있다는 신화는 이제 부정해야 한다.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시간은 학습자 개인의 시간이 아니다. 하나의 시계로만 흘러가는 시간이다. 이에 비해 별별랩은 교육의 시간이 학습자마다 다르다. 시간표를 보자.

<표 1> 별별랩의 시간표

오전 10:30 - 12:30										
	일	월	화		수	목			금	
수업	인턴십	개인 작업	세상 물정	인턴십	연애 (격주)	세계사	개인 작업	기타	개인 작업	재봉
학습자			김△△ 김○○○ 박○○ 심○○			김△△ 김○○○ 박○○				김○○○
	서○○			서○○	박○○ 심○○			심○○		서○○
		최○○ 김○○ 안○○	최○○ 김○○		최○○ 김○○ 안○○	최○○		김○○		최○○
			권○○							
참여 교사			염○○					김□□ 이○○		

오후 2:00 - 4:00											
	일	월	화		수	목			금		
수업	인턴십	개인 작업	디자인	인문학	개인 작업	페미 니즘	자아	개인 작업	낭만 (격주)	전체 모임 (격주)	글쓰기 (월1회)
학습자			김△△ 김○○○ 박○○	김△△ 김○○○ 박○○		김△△ 김○○○ 박○○			김△△ 김○○○ 박○○	김△△ 김○○○ 박○○	김△△
	서○○						심○○		심○○	심○○	
		최○○ 김○○ 안○○	최○○ 김○○ 안○○		최○○ 김○○ 안○○	최○○		안○○	최○○ 김○○ 안○○	최○○ 김○○ 안○○	최○○ 김○○ 안○○
				권○○	권○○	권○○			권○○	권○○	권○○
참여 교사			염○○		염○○ 지○○ 김□□ 이○○					염○○ 지○○ 김□□ 이○○	이○○

오후 4:00 - 6:00						
	일	월	화	수	목	금
수업			서양철학사 동아리(격주)	영어 스터디	별별목공	
학습자				김△△ 김○○○ 박○○		
				최○○	김○○ 안○○	
			안○○ 권○○	권○○		
			염○○		지○○ 김□□	
참여 교사			김□□ 이○○	김□□ 이○○		

일반학교와 확연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9명의 학습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마디로 제각각이다. 일반학교에도 선택과목이라는 것이 있지만 별별랩에서의 교육 시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학습자 각각의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시간은 빨리 가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시간은 늦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연령대가 같으면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전체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연령이라도 학습준비도의 격차가 있다. 출발단계에서부터 학습준비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시작한다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심지어 특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과목을 채택하여 함께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다른 집단은 당연히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달팽이와 치타를 경주시키고나서 달팽이에게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죄악이다.

요컨대, 별별랩은 학습자마다 교육의 시간이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은 단순한 과목의 선택에 따른 교육시간의 차이만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교육활동을 전개해나가는 시간이 상대적일 수 있어서 누구는 느리고 누구는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능력의 차이에 따른 학습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참여하는 시간량도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어떤 학생은 “계속 쉬는 날이 있어서 흐름이 흐트러졌다. 정오 12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핸드폰만 하다가. 생활패턴이 흐트러졌다. ...(생략)... 어제도 2시까지 애니보고 잤다.”고 하는 반면 어떤 학생은 “일정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자의 학습자에게 재촉하지 않는다. 기다려준다. 학습자마다의 시간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있다.

### 3. 공간의 확장성

별별랩에서 작성한 기획서를 보면 ‘배움과 일의 경계도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학습이 일어나는 곳이 굳이 학교일 필요가 없다. 의미 있는 학습은 지역사회에서 또는 기업의 일터에서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모든 교육을 학교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모든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교사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정년과 연금 등 안정적인 처우가 한 몫을 했을 수도 있으나 직접 목격하고 접한 직업이 교사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학교는 이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다. 최근에 진로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 이러한 직업세계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사회와 괴리된 학문중심 학교교육의 근본적 한계이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대부분의 수업은 ‘몇 학년 몇 반’으로 불리는 보통교실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과학수업은 과학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체육은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가사는 조리실에서 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사회에서 하지 않는다. 물론 사회가 꼭 물리적 사회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규칙을 수립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될 터인데 일반학교에서의 사회과 교육은 주로 보통교실에서 교과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학생자치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별별랩에도 교실은 있다. 그러나 별별랩의 교육활동 공간은 교실로 한정되지 않는다. 한 친구는 몇 주 동안 ‘꽃다방’이라는 카페에서 인턴십 활동을 하기도 했다. 별별랩에는 특별한 일이나 선택한 수업이 있을 때만 왔다.

별별랩은 기본적으로 연구실, 실험실, 작업장이라는 개념으로 교육공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실은 주로 강의·토론수업을, 작업장은 말 그대로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작업공간이며, 실험실은 직접 사회적 체험을 하는 현장을 말한다.

<표 2> 별별랩의 교육공간

공간	기능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적 삶을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한 지식적 측면의 학습을 위한 과정</li> <li>- 연구수업, 특강, 주제별 토론회 및 학습 공유회 형식으로 진행.</li> <li>- 인류의 지혜를 배우는 철학, 미래사회에 대한 상상/대비할 수 있는 인문학, 여백이 있는 삶과 생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낭만수업, 사회적 경제를 포함한 경제상식, 역사와 페미니즘, 대안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단체 탐방 등</li> <li>-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진행시간, 방식 등을 논의하여 개설 과목, 진행방식 결정</li> <li>- 논문이나 에세이, 기타 외화되는 방식으로 사고방식의 전환의 과정을 기록, 정리</li> </ul>
실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경험을 통해 일에 대한 생각을 비교 정리하는 과정.</li> <li>- 상(하)반기에는 2~3개월의 일반 아르바이트(직접 구직), 하(상)반기에는 2~3개월간의 사회적 경제 영역의 사업장에서의 인턴십을 체험(협력 사업장 연계). 주 3~4일</li> <li>-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연구수업(노동법, 일과 인문학 등)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관점과 지향을 되돌아보도록 유도.</li> </ul>
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자신이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사진, 목공, 축제, 예술, 먹거리, 기획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자립을 시도.</li> <li>- 마을과의 접점 속에서 생산과 판매, 진행 등의 과정을 통해 수익을 창출.</li> <li>- 마을목공소, 청년공간을 활용한 무인판매, 건대 프리마켓 부스 운영, 동네 축제 및 행사 진행 수주 등을 진행.</li> </ul>

요컨대, 별별랩의 교육공간은 일반학교에서의 교실과 같은 고정성을 갖지 않고 탄력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것은 학습자가 어떤 교육활동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최근에 일반학교에서 교과교실제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교내에서는 교과별 특화된 교실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며,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해당 학기나 학년이 끝나면 또다시 학문중심·교과서중심의 탈사회적 교육으로 귀환한다. 교과교실은 나름대로 교과와 관련된 상황들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학교 안으로 교육공간을 한정시킨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 4. 학습자의 주체화

전통적인 학교교육에서 학생은 늘 교육의 대상이었다. 교사의 주역할은 가르치는 것이고 학생의 역할은 늘 제자리에서 교사의 가르침에 경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의 경험은 백지가 아니다. 모종의 경험세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생활세계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다. 교육은 그 경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구성해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의 내용 선정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자는 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교는 어떠할까?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규정도 없다. 위에서 말한 교육 내용의 선정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은 소외되어 있다. 식당에 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내와서는 억지로 먹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별별랩에서는 학습자가 교육의 주연으로 부각된다. 대표적으로 별별랩 탄생 이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청년’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우리 넷은 다 다른데 하나의 시간표를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학생들이 가져온 주제별로 기획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별별랩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별별랩에서 학습자들이 교육의 주체로 등장하는 모습은 기획회의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2017년 8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하반기(2학기)를 준비하는 기획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① 지난 학기 동안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고민을 털어놓고 새로운 구상을 말한다. ② 다른 사람들이 그 발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③ 모든 학습자들이 한 번씩 다 말하고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쪽지에 적어 게시한다. ④ 다음 날 해당 내용들을 수합하고 분류하여 새로운 교육활동을 설계한다.

이 장면에서 가장 의미있는 장면은 학습자들이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자신의 일인양 공감하거나 관심을 가지며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부각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화 교육이 완성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적 기능으로 한정된다. 교육은 정서적 발달도 도모하는 과정으로 여기에는 사회적 관계 능력이 포함된다. 기획회의에서의 그러한 장면은 ‘공동체 속에서의 개별화 교육’의 지향을 나타낸다.

별별랩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일은 교사의 주된 역할이 아니다. 여기서 길잡이 교사의 주된 역할은 연결자, 조정자, 협력자이다. 특정 과목의 경우에는 학습자로서 참여하기도 한다. 길잡이 교사들이 전면에서 나서지 않을수록 학습자들

이 움직인다. 교사들이 기다릴수록 학습자들이 먼저 다가간다.

요컨대, 별별랩에서는 주연과 조연이 따로 없다. 학습자들은 더 이상 ‘피교육자’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된다. 그들이 스스로 교육내용을 제안하고 선정하고 조직한다.

## 5. 교육내용의 개별성과 현성성(現成性) 가변성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세세한 단위수까지 정해 놓고 있다. 학교에서는 단지 20% 내에서 교과간 시간을 증감할 수 있을 뿐이다. 그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대통령이 교과를 정하면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지시하면 대학의 교수와 학교 교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모여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정해진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이 교육청에 전달된다. 교육청은 교육감의 시책을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장은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의 전공과목을 기초로 학교교육과정을 만들어낸다. 철저히 관료주의적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내용이 다분히 학문중심이라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교육은 지식전달 위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정답을 잘 맞춘 학생에 대해 상찬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별 학생들의 참된 성취보다는 변별을 위한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은 어려워지고 그 결과 낙오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교육내용을 보면 학생의 생활이나 경험과 관련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학생들의 일상적 관심과 흥미, 필요와 거리가 멀다. 지식의 팽창에 따라 그 많은 학문적 지식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그야말로 ‘학문중심’교육과정이다.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문용어들을 약간만 ‘번역’하여 교과서에 싣고 있다. 공식과 법칙을 강조하고 학문적 중간언어로 되어 있으니 언뜻 보면 학문중심교육과정 같지만 본래 의미의 학문중심교육과정도 아니다.

학문중심교육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식이 급속히 팽창하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을 가르칠 수 없으므로 전이가가 높은 지식, 즉 학문분야별 기본적 핵심개념이나 원리와 같은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자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을 가르치자는 것이다. 학문연구결과로서의 지식덩어리는 변하지만 지식의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자

와 학생의 지적 활동의 구조는 수준과 표현양식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 동일한 활동이다. 따라서 학생도 제대로 지식의 구조를 터득하려면 학자와 같이 그 원리를 발견하기 위한 탐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의 탐구 대신 지식의 전달만을 해온 것이다. 1940년부터 2000년까지는 논문수가 20년마다 2배씩 증가했지만 2000년 이후로는 10년에 2배씩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폭발하는 지식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다 전달할 수 있단 말인가? 실로 불가능한 일이다(김성기, 2017).

별벌랩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탄생하고 있는 지식덩어리들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려 하지 않는다. 아니 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경험을 선정하고 활동을 조직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은 매우 복합적인 교육적 요소를 갖고 있다.

“결과물보다는 그것을 내는 과정이 의미 있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복합적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내 목표가 논문이라고 할 때 내가 가봐야 할 곳도 있고, 훈련도 해야 하고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내 욕구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 더 와닿게 생각한다.”

(길잡이교사의 진술)

요컨대, 별벌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내용은 특정한 지식의 덩어리들이 아니라 그 지식들을 찾아가고 만들어내고 구성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그 속에서 무언가를 학습하는 과정 그 자체가 곧 교육의 내용이다. 그래서 별벌랩의 교육과정은 현성성 또는 가변성을 가진다. 즉 학습자들의 관심사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새로 생성이 되거나 바뀔 수 있다.

## 6. 모듈식 경험쌓기

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1969)에서 학습기억률(average learning retention rates)을 제시한 바에 의하면 강의만 들은 경우는 5%, 책만 읽은 경우 10%, 시청각수업을 한 경우 20%, 교사가 시범을 보인 경우 30%의 기억률을 보인 데 비해, 능동적으로 토론한 경우 50%, 활동을 한 경우 75%,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배운 것을 직접 사용한 경우 90%의 기억률을 보였다. ‘활동’은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이다. 전통적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란 고작 교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노트에 밑줄을 긋는 일이었다. 교사는 판서와 설명을 잘 하면 되었다.



위와 같은 강의식 교육방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인수학급에서 불가피하게 채택되었던 방식이다. 브루너가 말한 학문중심교육과정과도 거리가 멀다. 별별랩에서 시도하는 개별 활동들을 보면 연구실(수업)에서도 강의식 수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주로 토론수업으로 진행된다. 최대한 학습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그래서 늘 학습자들이 살아서 움직인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방식은 최근에 일반학교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별별랩의 교육방법은 구체적인 수업방식이라기보다는 교육체제에 가깝다. 그것은 경험의 블록을 쌓아가도록 학습과정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그 단위를 별별랩 기획서에서는 ‘모듈’이라 표현하고 있다. 즉 학습 모듈이란 분절된 소단위의 배움 내용을 말한다. 모듈에 따라 3~10회기의 단기 모듈(1~2개월 내외), 10~20회기의 중기 모듈(3개월~5개월 내외), 20~30회기의 장기 모듈(6개월~1년 이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의 활동이 몇 회기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 회기는 활동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획일적인 시간표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의 학습모듈은 그 자체로 작은 완결성을 가진다. 전체적인 교육의 단계는 없으며 학습자가 그 모듈을 조합하여 자신의 배움과 일과 생애를 설계한다. 2017년에는 최대한 다양한 모듈을 생성시키고자 했으며 2018년부터는 모듈을 결합한 다양한 트랜스포머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의 진로를 개척하는 역량을 키우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다양한 진로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 별별랩 과정 이수 후(3년 내외) 좁혀진 아이템으로 소규모 창업(개인 또는 협동조합).
- 인턴십 경험을 기초로 적절한 사회적 기업 등의 정규직 일자리 진출.
- 마을 행사 등의 기획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을 일거리를 공적인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마을 활동가로 양성.
- 자신이 습득한 여러 모듈을 활용한 프리랜서로서의 생업.
- 기타 다양한 경제/사회활동 진입.

요컨대, 별별랩은 일제식 강의수업을 지양하고 학습자별 모듈형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10여명의 학생이 늘 한 반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한다.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획일화된 진로 경로가 아닌 방식과 층위에서 다양한 사회진입의 경로를 창출하고자 한다.

#### IV. 별별랩의 의의와 논제

별별랩은 교육의 개념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혹은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재구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학습자를 교육의 피동적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내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한 학습의 주체는 스스로 자신의 현재의 삶과 관련된 상황이나 관심사로부터 경험하고자 하는 학습요소들을 추출하고 그것을 모듈로 조직한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교육 시간이나 공간은 제각각이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학습자들의 활동은 개별화되어 있지만 그 활동요소들을 추출하고 모듈을 조직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체적이라는 점이다. 개별화 교육이 자칫 교육소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별별랩의 실험은 제도실험이 아닌 교육실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육부가 시범학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제도들을 실험해 왔지만 사실은 이미 정책추진을 예정하고 그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시범학교를 시행하고 나서 정책을 철회한 경우가 거의 없다. 제도실험은 정책실험이었지 교육실험이라 보기 어렵다. 별별랩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주체와 내용, 방법을 바꾸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제시할 수 있다.

별별랩의 학습자들은 교육보다 앞선 삶을 산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지식이나 규칙들을 가르친다. 따라서 현재의 삶과 괴리된 것들이 많다. 정작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의미없는 지식들이 될 것들이다. 별별랩의 학습자들은 현재의 삶으로부터 학습경험을 도출하고 그것들을 조직하여 체험한다. 자신과 관계 없을지도 모르는 삶을 교육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으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다.

별별랩에서 학습자들은 성인들이 만들어놓은 인재상이 되기 위해 만들어지기 보다는 스스로 학습모듈(체형)을 구성하고 조직하여 스스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해체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틀이다. 별별랩은 탄력적인 교육체제의 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별별랩은 하나의 실험이다. 물론 정부에서의 형식적 제도실험과는 다른 근본

적인 교육의 질적 변화를 시도하는 과감한 실험이라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실험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결된 교육체제라 말하기 어렵다. 몇 가지 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체제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형성과 전개에 있어 강사 주도의 수업은 없는지, 토론이 탐구 없이 각자의 생각과 느낌만 점검하는 토론은 아닌지 등등 수업의 질적 검증 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기획 단계에서의 계획이 잘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물론 현성교육과정적 측면이 있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일상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의 안정성을 살펴봐야 한다. 교육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학습자들에게 돌아간다. 교육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먼저 교사들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사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운영의 제도적 지원을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도적 지원은 통제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의 차터스쿨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은 하되 통제는 하지 않는 협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조직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고효율이지만 고비용이기도 하다.

셋째, 학력인정에 대한 입장을 살펴봐야 한다. 새는 비행자격증이 없어도 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학력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창업 등 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도 있겠지만 이러한 의미있고 내실있는 교육을 받는 결과에 대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학력인정은 제도적 지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차제에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창환, 엄문영, 김기현,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이광현, 이상돈(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Ⅱ):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교육부(2014). 유치원 2014년 8월 정기 정보공시 보도자료.
- 교육부(2016a). 2016년 다문화교육지원 계획 보도자료.
- 교육부(2017a).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보도자료.
- 교육부(2017b).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 교육부(2017c). 2017년 다문화교육지원 계획 보도자료
- 국민일보(2014.3.29.). 부모 부담 사립유치원비 연 230만원.
- 김성기(2017). '교육패러다임 변화 속에서의 교과교실제의 방향과 의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 정제영(2016a).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 정제영(2016b).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 시스템 재설계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4(4), 49-71.
- 정제영(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제도 개선 방안 : 개인별 학습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4(3), 53-72.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2016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통계청(2016b). 2016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 통계청(2017). 2016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2017. 2. 2)
- Hargreaves, A., & Shirley, D. L. (2012). The global fourth way: The quest for educational excellence. CA: Corwin.
- OECD(2017). OECD Family Database(INDICATOR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인출.

**Abstract**

**Study on the case of Module based Education**

Kim, Sungki (Hyupsung University)

Chung, Jae Young (Ewha Womans University)

Korean society has been changing rapidly because of demographic decline, multiculturalism, hierarchical polarization, internationaliz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school system maintains the model of industrial society. Every student learns the same curriculum in the same space and time in the classroom. This school system could not make all the learners succeed.

We observed the alternative school, 'Byul Byul Lab' characterized as Module based Education. This case shows the intrinsic value of education, the relativity of time, the expansion of space, the learner 's subjectiveization, the remarkable change in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he experience of modular experience. The systematic evalua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the stability of education, the logic of academic recognition remains as the thesis.

**Key Words:**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module based education

